

10월 정세 전망 및 동향

| 정책조정실 한민수 차장 |

1. 한-미 FTA 3차 협상 종료...농업 부문 '유연성 발휘'로 희생양 될까 촉각

○ 9월 6일부터 9일까지 시애틀에서 한-미 FTA 3차 협상이 진행되었다. 미국이 한국의 농업 부문 양허안의 개선을 요구하여, 민감성이 덜한 품목(밀, 콩, 옥수수 등)부터 양허 수준을 개선하자는 데 합의하였다. 양국은 9월 중 양허안 수정본을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

○ 그런데 3차 협상 직후, 정부 고위 인사들이 한-미 FTA의 타결을 위해 농업 부문을 '빅딜' 할 수 있다고 잇달아 발언하였다. 9월 13일 농림부장관이 "협상 막바지에 농산물과 타 분야의 연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쇠고기는 관세철폐·감축 등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하여 양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15일에는 김종훈 협상 대표도 "민감성이 덜한 품목부터 유연성을 발휘하겠다"고 답변했으며 "내년 3월까지의 협상을 타결시킬 것"이라고 하였다.

○ 특히 이백만 청와대 경제수석이 21일 청와대브리핑 홈페이지 기고문에서 "쌀을 제외한 경쟁력 없는 품목의 생산비중이 2%에 불과, 쌀만 지킬 수 있다면 겁낼 필요가 없다"고 했으며,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생들의 한-미 FTA 반대 서명을 저지하라는 공문을 하달하기도 했다.

○ 이같은 정부의 잘못된 대응은 협상 대응력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미 미국은 쌀을 포함해 완전히 개방 예외를 적용받는 품목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셰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 또한 관세철폐 후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재발동을 금지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이다.

○ 이에 농번기임에도 10월 23일~27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릴 4차 협상에 대한 저지 투쟁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각 지역에서 현재 진행중인 한-미 FTA 저지 서명운동 및 지방의회 결의문 채택 운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하여 전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에 나서야 한다.

2. 통상절차법 조기 제정 및 한-미 FTA 저지를 위한 국회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

○ 지난 2월 권영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상절차법'의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은 △통상정책의 목표, 기본원칙, 정보공개 원칙, 통상정책 수립 등의 일반적 사항은 물론 △행정부 내 심의, 의결 기구와 방식 △민간자문기구의 구성과 참여 △협상 절차 등이 담겨있다. 한편 9월 7일에는 여야 국회의원 23명이 한-미 FTA와 관련,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동의권을 침해했다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소송을 제기하였다.

○ 하지만 때늦은 국회의 한-미 FTA 대응 활동마저 그 수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많다. 3차 협상 직후 정부는 국회 내 한-미 FTA 특위에 협상 문서를 공개했으나, 공개 일정마저 숙지하지 못한 국회의원이 많았다. 미국의 섬유류 원산지 표시 규정인 안 포워드조차 알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을 질타하는 섬유업계의 불만이 터진 것도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한-칠레 FTA와 쌀 재협상 등에 있어, 극심한 사회적 갈등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한-미 FTA 특위에서도 일부 국회의원만 “정부가 2단계로 협상을 추진하려 한다”고 지적하며 날카롭게 문제점을 지적하는 정도이다.

○ 입법기관이며 행정부를 감시·견제해야 할 국회가 통상협상 대응 활동을 제대로 해야만 헌법에 보장된 조약 및 비준동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한농연은 한-미 FTA 농대위 소속 단체들과 함께 통상절차법의 조기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3. 쌀값 하락 추세 심상찮아...농협 RPC 벼 매입가 하락 심화

○ 올해 농협의 벼 자체 매입가격이 작년에 비해 크게 하락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추석 전 고가 쌀 출하를 위해 계약재배된 조생종 벼 매입가격에 이어 일반벼 매입가격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농가들의 불안이 매우 크다.

○ 한국농어민신문이 파악한 결과(9. 25 현재) 전국 농협 RPC의 벼 매입가는 조곡 40kg 벼 포대 당 평균 5천 원 가량 하락한 수준에 잠정 결정된 것으로 결정됐다. 특히 작년 상대적으로 쌀값이 높았던 경기도와 강원도는 물론, 충청북도 지역까지 벼 매입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쌀값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 충북 지역 벼 매입가격의 하락이 자칫 전라도·경상도 지역까지 번지지 않을지 예의주시해야 할 때다.

○ 더욱이 친환경 쌀을 재배했던 농협과 작목반은, 국내 경기침체로 판로를 찾지 못해 재고미 부담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소비자단체 등에서 학교급식에 친환경 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 작년 가을 극심한 쌀 대란 속에서 농협 RPC는 낮은 값에 산물벼를 매입했으며, 판로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상당량의 재고미를 민간 도정업자에게 넘겼다. 이같은 주먹구구식의 농협 RPC 경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농민조합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반면, 민간 도정업자와 소비자 유통업체들은 저가 미끼상품 판매로 짭짤한 이익을 올렸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조합원들에게 좋은 값에 사서 제값에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고품질쌀의 유통 체제를 갖추려면, 농협 RPC의 건전 경영을 앞당기기 위한 한농연 회원과 농민조합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다.